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 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KWIK**  
**퀵 모기지**  
주/택/용/자/전/문

다양한용자상품, 전화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Century 21**  
SYLVIA GEIST AGENCY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프린/스/틴/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United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들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즐거움 약국, 편안한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카톡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감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Tel (732)985-9500  
Fax(732)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Su-Ra Catering**  
(구)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깊어진 풍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크리닉  
732-248-1980 1939 RT.27 Edison NJ 08817

**Central Funeral Home**  
중앙 장의사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HYUNDAI**  
TOYOTA KIA NISSAN Jeep CHRYSLER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  
2020년  
5월 2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8:00 AM  
(영어) - 10: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사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마태오 28, 16-20

<이번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사도행전 1,1-11  
# 제2독서 사도 바오로 에페소서 1,17-23  
# 화답송 시편 47(46),2-3.6-7.8-9(© 6)  
# 복음환호송 마태 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오 28,16-20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5/25/20	사도행전 19,1-8	요한 16,29-33
화요일 5/26/20	사도행전 20,17-27	요한 17,1-11
수요일 5/27/20	사도행전 20,28-38	요한 17,11c-19
목요일 5/28/20	사도행전 22,30; 23,6-11	요한 17,20-26
금요일 5/29/20	묵시록 12,10-12	요한 12,24-26
토요일 5/30/20	사도행전 28,16-20.30-31	요한 21,20-25
일요일 5/31/20	사도행전 2,1-11 사도바오로 코린토 1서 12,3c-7.12-13	요한 20,19-23



## 미사지향

### 연미사 (봉헌자)

- 정영옥 (수산나) - 가족,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허길자 (세실리아) - 가족

### 생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오.사.모, 흥 비안네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진철(요한) - 김 올리아, 스테파노 가족
- 변상민(에드워드) 가정 - 변태용(요셉)
- 변새힘(샘) 가정 - 변태용(요셉)
- 유희자(베로니카) 빠른 쾌유 - 가족, 노스에디슨 구역 변태용(요셉) 가족

## 교무금 납부 안내

최두철(1-6)	김진(4-5)	이용문(5)
박화성(4-6)	박정훈(5)	
합계: \$1,100		

## 감사 헌금 납부 안내

배인호(\$100)	이중권(\$200)	박화성(\$300)
한광동(\$100)	익명(\$700)	
합계: \$1,400		

## 주일 헌금 납부 안내

합계: \$950
-----------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 2020 Bishop's Annual Appeal

-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 3월5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9,085 (26%) 입니다

## 공지 사항

**#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 매일미사 책 배부 안내**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미사 책 배부는 잠시 중단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제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732-356-1037

**#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2020-21 예비자 모집**  
 -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지도사제: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임진각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욱순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1. 우편으로 납부**  
 분실위험으로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2. 현금으로 납부**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2) 구역장님이나 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시실 경우 구역원과 구역장님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Venmo**  
 친구찾기로 "SBB-LEE"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헌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장에게 문의바랍니다.(732-258-5998)

교무금 및 헌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신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마태오 28,16-20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복음 묵상 나눔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마태 28,16-17)

1. 오늘 제자들은 주님과 또 한 번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이별은 지난번 이별(예수님의 수난과 죽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이별입니다. 지난 번 헤어짐이 고통과 슬픔의 이별, 엄청난 상처와 충격, 큰 두려움을 가져다준 이별인데 비해, 이번 이별은 축제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마치 부모님들 외국 호도 관광여행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2. 오늘 복음말씀에서 가르치는 복음전파의 사명은 거대한 것이 아닌 사소한 삶의 성화와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부터 시작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 그분과 함께 머물겠다고 다짐하며 한명씩큰소리로외쳐봅시다.“나(아무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 신앙 칼럼

### 거리에서 맛 본 부활의 기쁨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럽고 환희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요한 아침에 찬란한 빛 속에서 닫혀 있던 무덤의 돌문을 열고 부활 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환희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거창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고 살고 있었던 우리 일상의 소중함과 우리가 만나고 보는 사람들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작지만 아주 깊은 기쁨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에디슨 성당의 젊고 멋진 천상의 지혜 레지오 프레시디움과 오현주 요한 형제님께서 하셨던 길거리 식사 봉사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해 준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 주님은 부활하셨네!  
 어제 오후에 , 다정하고 마음씨 고운 자매님들과 뉴브런스윅 시내를 걸으며 저의 가슴이 따뜻해졌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온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거리유지를 미덕으로 여기는데 천상의 지혜 프레시디움 단원들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주기 위해서 정성을 모으고 시간을 나누며 봉사하는 모습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차를 파킹하고 자매님들 만나서 조금 걸으니 버스정류장 칸막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탐이라는 분에게 성금 다가가서 아주 친숙하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는 모습에 저 자신 조금은 놀라움을 숨겼음을 고백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바람이 많이불고 쌀쌀해서인지 평소보다는 노숙자들이 적어서 기차역까지 걸어가며 발랄하게 대화를 나누고 기차역에서 또 브랜드라는 여성과도 그냥 음식만 나눠주는게 아니고 친숙하게 이야길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좋았죠. 또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노숙자... 다음은 RWJUH 병원 옆에있는 스페니쉬 노숙자에게는 능숙한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며 감기기운이 있음을 감지하여 감기약까지 꺼내어 전달하며 보살피는 모습에서 마더데레사의 평화롭고 자애로운 모습이 살짝 지나갔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쓸쓸스러운 골목길을 남자가 걷기에도 뒤를 돌아보며 조심할 거리인데... 음식을 모으고 만드는 정성,그리고 약국에서 일하는 자매로부터 전해 받은 감기약... 여럿이 각자의 몫을 나누고 모으는 모습을떠올리며 흐뭇함을 간직한채... 동행을 허락해준 자매님들 그리고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미천한 이에게 한것이 예수님께하는 일이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였으니 하루는 하느님 나라를 체험했고, 저 자신도 행복한 마음에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 오현주 요한

+ 찬미 예수님, 형제님 나눔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당에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식재료와 약품, 위생물품, 간식등을 지원해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처음엔 저희가 노숙자분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였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저희가 노숙자분들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의 가난이 무엇인지, 나날 때의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지붕있는 집에 사는 행복에 대해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샌드위치를 거절하시는 노숙자분이 오히려 형제님께서 가져오신 간식을 보고 좋아할 때, 아.. 간식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한테 굳것질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다보니, 노숙자분께도 후식이나 과자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던 것이 스스로 참 부끄러웠고, 자신이 하느님께 넘치도록 사랑받는 존재인 줄 깨달아야지만, 타인에게도 그와 같이 풍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천상의 지혜 Pr. 주님 안에서 아끼 걸음마 하듯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상의 지혜 프레시디움